

2002년 1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
 아직도 지난해를 되돌아 보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여 하느님과 기도으로 더욱 가까워지도록 결심하기를 바란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아직도 세상일에 집착하며 영적 생활을 멀리하고 있구나. 오늘 나의 부름이 너희로하여금 하느님을 위하고 또 매일 변화되는 삶을 결심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죄를 버리지 않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변화될 수 없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여 고맙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당신의 그 부성(父性)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에 감사드리며, 수태고지에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씀하셨던 성모님의 열려진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당신 아드님의 이름으로 청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안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음에 상처를 갖고 증오와 미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한층 더 비참하게 되어 모욕(독설)을 퍼붓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새롭고 선한 말들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리워하며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와 교회의 일원이 된 모든 사람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릇된 경험과 그릇된 길, 그릇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어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사랑 안

메주 고리에

Medjugorje

제13호

February, 2002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에서 부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변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께 향하기로 결심하고 당신 아드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악에 대항하며, 당신께 대한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중심에 당신의 뜻이 계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당신 아드님과 함께 오시어 우리를 부활시켜 당신 평화와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슬라브코 신부님의 기도>

평화의 모후께 올리는 교황님의 기도



모든 크리스찬의 도움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는
사랑의 눈과 빈손 그리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옵니다.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님을 뵙고자
당신을 우러러 보옵니다.
살아있는 빵을 맛보고자 두 손을 쳐드립니다.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마음을 활짝 여나이다.

교회의 모후시여,
당신의 아들 딸들은,
당신께서 온전히 믿으신 말씀이
세세 대대로 메아리침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비어진 영혼을 일으켜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말씀이 세상에 오시어 세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당신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군림하면서
은총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여명이 떠오릅니다.
모든 천하의 교회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을 찬양하나이다.

오 스텔라 마리스,
모든 바다의 빛이시며 여왕이시여,
어둠과 거센 파도속에 허덕이는
대양주의 모든 민족들을 인도하시어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께서 준비하신
평화와 빛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소서.
거센 파도가 앞을 가리며 아직 분향이 가깝지 않사오니
모든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오 마리아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고
사막을 지나고 있는 지금,
당신 태중에 계신 아드님을 보여 주소서.
그분 없이는 우리가 방향을 잃게 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온 마음과 정신, 말과 행동, 나날의 고통 그리고
평온함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말하게 하소서.

평화의 모후여,
모든 폭풍이 고요히 잠든 당신과 함께
새 천년을 시작하며 기도 올립니다.
오대양 안에 거하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당신 아드님의 얼굴에
은총과 진리가 가득하심을 늘 드러내게 하시어
태평양 민족들의 마음에 하느님께서 군림하시어
세상의 참된 구세주 안에 평화를 찾게 하소서.
오대양 위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교회가 강한 힘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굳건히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용감히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쁘게 살게 하소서.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2001년 11월 22일 (24회 교황직)>
- 번역 / 평화의 모후센터 -

성모님과 함께 하는 복음전파 시명



김한기 시몬 신부
니. 그레이트넥 성당 주임

찬미 예수님, 성모님

임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루셨던 성가정의 모습처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어 복되신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지난 8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은 산골 마을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모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하시어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면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최초의 인물이자 첫 제자이며 또한 최초의 복음 선포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다는 세례자 요한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성모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루가 1장 39-45>. 그리스도를 이세상에 내어준 이가 바로 성모 마리아 이신데 그분은 선교하는 교회와 모든 사도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성령강림 이후 교회가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기쁜소식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를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메시아적 희망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말씀들은 바오로의 설교 <1고린 15, 3-5, 로마 1.1-4, 갈라 4.4-7 참조>와 4복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리라는 알림을 들은 최초의 인물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복음전파) 최

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후 엘리사벳을 서둘러 방문한 마리아의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기쁜소식에 충만하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루가 1,38> 라는 신앙의 순명으로 모든 구원 역사와 신비를 받아들인 그녀야말로 복음 선포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완전한 신뢰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와를 통해 죽음이 왔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되었으며 제 2의 하와인 성모 마리아가 구세사의 크나큰 흐름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자 시몬의 말처럼 가슴이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간직하며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지켜 본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하느님의 뜻에 깊은 침묵으로 의탁하여 시련과 좌절을 감수하는 믿음의 복음 선포자로서의 성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며 자신을 박해하고 냉대하는 모든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인간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만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신비로 가슴에 깊이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어머니 즉 새로운 교회의 어머니로서 복음 선교 사명에 원동력과 추진력을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것은 성서나

전승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모님이야말로 복음화의 별이며, 큰 빛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셨던 성모님은 가나의 온인잔치에서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대로 하여라”〈요한 2, 5〉라고 하시며 신앙의 절대적인 순종을 드러내셨을 때 이미 복음 선포를 하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를 어머니로서 뚜렷이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언하시며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머니의 깊은 모성적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평화의 모후센터에서는 성모님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이를 전해야 할 사명감을 느끼어 2001년 1월부터 성모님의 소식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절대적인 순명, 즉 신앙의 길이자 모든 십자가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내의 길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의 열정을 불태우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만연된 죄악으로 인하여 온갖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된 이세상에서 진정한 구원과 죄의 해방을 선포하고 평화의 길이자 사랑의 길로서 모든 흠어진 민족과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는 일치의 모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성모님은 오늘도 메주고리에 오시어 기도, 단식, 성서읽기, 성체, 고백성사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가죽포대에 넣었던 다섯개의 돌처럼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껏 세계 각처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어려움을 (4) MEDJUGORJE

지인 ‘메주고리에’를 매월 발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이 메주고리에서 매달 주시는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며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고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모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평화의 모후 센터의 어려움이 알려진 뒤 〈10월호〉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넓혀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사명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며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모님과 함께 하는 복음전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기에 지속적인 후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힘으로 이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M**

아버지의 사랑 / 형의 사랑

이창재 부제 / 미네소타 성당

저를 낳으시고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이제는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던 본당신부님도 돌아가 하늘나라에 가시니, 저는 '주님의 기도'를 시작할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은연중 '나의 아버지는 모두 하늘에 계시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현존의식 보다는 '아버지는 내가 살아 생전에 도달할 수 없는 저 곳 멀리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세상에는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알아주시는 아버지가 없다는 좌절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보며, 세상은 십자가의 길이니 이 고난의 세상을 떠나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아버지를 만나보게 되리라는 생각을 은연중 가지게 되었고, 세상을 기쁘기보다는 아주 심각하게 살고자 했으며, 이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이며, 성인 성녀들의 생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무슨 비극의 주인공이나 된 듯이 심각하였고, 또 우국지사나 된 듯이 나라의 현실을 개탄하며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 보건대 이러한 제 생애의 암울한 시기는 전쟁과 증오의 악순환을 조성하는 사악한 사탄의 영향이요,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던 본당신부님을 사별한 아픔의 상처요, 현세 사랑을 주님의 품에서 승

화시키지 못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치하에서 저는 하루 하루를 전전궁궁하며 불안에 떨면서도, 급박한 정치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나라와 민족의 역사적 운명과 세계 정세에 온 정신이 팔려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저는 기도보다 역사 철학과 이념서적 읽기에 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당이 다시 수복되고 얼마가 지난 다음 새로운 본당신부님이 오셨지만 저의 가슴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성당에 가도 전 같지 않고 서먹 서먹 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니나 흡사 의붓아비를 본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아무튼 새로 오신 본당신부님께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보는 외에는 개인적으로 신부님께 가까이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병고와 전란으로 고향에 돌아와 쉬고있던 선배(대학생)들이 본당에서 가톨릭 학생회를 만들었고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함께 일하며 사귀게 되었는데, 특히 존경하는 두 선배가 있어 한 분은 회장, 다른 분은 부회장으로 저를 동생처럼 대하고 사랑해 주며, 저의 생각과 의욕을 다듬어 주고 지도해 주니,

형이 없던 저는 이분들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자주 두 분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고교시기에 이렇듯이 훌륭한 두 선배를 만나서 친교를 나누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뒤에 한 선배는 대학(의대)으로 복학하고, 다른 선배는 지병으로 작고하고 나니, 결국은 고향에 남아있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여 상경할때까지 본당 가톨릭 학생회를 맡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비스카 는 지금도 계속 매일 성모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자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비스카 이반코빅은 순례자들로부터 특별한 인기를 끌고 있다. 모두가 그녀를 반가며 그녀를 통하여 성모님께 무엇을 묻고자 한다. “평화의 행령”에 참여하고 있는 그녀를 잠시 멈추게 하고 지금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비스카 : 오 어떻게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참으로 성체안에 계신 예수님 뒤를 따르며 묵주기도를 올리고 노래 부르는 것은 장엄한 일이지요.

마리엔 : 성모님의 발현을 15년 동안 받은 후의 소감은 어떤지요?

비스카 : 굉장하지요. 발현 첫날 받은 느낌과 같아요.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청소년들과 가정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에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하시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재촉하십니다.

마리엔 : 무슨 계획인데요?

비스카 : 성모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게 되겠죠.

마리엔 : 당신은 아직 열 번째 비밀을 받지 않으셨지요?

비스카 : 네, 지금까지 9 개를 받았어요.

마리엔 : 언제 마지막 것을 받게 되겠어요?

비스카 : 성모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고, 저는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마리엔 : 아직도 매일 그분이 당신께 발현하시지요?

비스카 : 네,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발현하시는데 어떤 때는 언덕 위에서, 어떤 때는 성당 안에서, 어떤 때는 집에 있을 때 입니다. 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발현하십니다.

마리엔 : 순례자들은 대개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비스카 :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모두가 성모님의 지향으로 기도하며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설득합니다.

마리엔 : 성모님의 메시지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받아들여 졌나요?

비스카 : 성모님께서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신 메시지들을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새로운 메시지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엔 : 성모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비스카 :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다가 실증이 나면 다시 옛 삶으로 돌아 갑니다. 성모님은 모두가 메시지를 조금씩 실천하면서 삶 안에 진전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엔 : 그래서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에 것처럼 오래 발현하시는가요?

비스카 : 잘 모르겠어요. 옛날 언젠가 성모님께 얼마나 더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냐고 여쭙었지요. 그때 대답하시기를, “왜? 벌써 나에게 실증이 나니?” 라고 하였고 그 후로는 절대로 이것에 대해 묻지 않는답니다. **M** - 번역 / 평화의 모후센터 -

오늘날 처럼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

“기도하여라, 기도, 기도하여라!”

마약복용 등 '위험순위' - 아시아계서 가장 높아

술, 담배 그리고 마약문제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한인 기성세대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 역시 술, 담배와 마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들이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마약에 관한 사용율은 타 아시아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립 마약규제 정책국이 전국에 있는 12세 이상 7만 1,7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인들의 술, 담배와 마약 남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다.

마약남용 현황

한인들의 마약 사용율은 아시아계에서 상위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립 마약규제 정책국이 최근 발표한 2000년 마약 남용 조사에 따르면 한인들이 타 아시아계에 비해 마약 복용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설문조사 기간의 전년도인 1999년 한 해 동안, 마약을 사용한 한인의 비율이 9.5%로 아시아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들은 마리화나에 비해 중독이 높은 헤로인이나 코케인, LSD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복용 실태를 인종별로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푸에르토리칸이 16.3%, 흑인 12%, 백인 11.3%, 멕시코인 10.3%, 한인 9.3% 등의 순으로 조사, 한인들의 마약복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쉽게 구입, 빠르게 중독 “죽음의 연기”

한인 청소년들이 마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마약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

다. 청소년들의 마약 남용은 개인의 건강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 학업문제 등과 관련되어 복잡한 사회 문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불법 마약은 마리화나이다.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남용 어디까지 왔나,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마리화나 남용 실태

유스 & 패밀리 포커스의 ‘한인 청소년 마리화나 남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인학생들이 다니는 한 고등학교의 경우 한인 고등학생 75% 정도가 한 번 이상 마리화나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달 또는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마리화나를 접하는 한인 청소년도 30-4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청소년들이 마리화나를 처음 시도하는 평균 연령층은 14세 이며 일부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다.

한인 청소년들은 마리화나를 어디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마리화나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늘고있는 추세이다. 한인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를 통해 마리화나를 5-10달러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고 있다. 이들은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학교, 당구장, 클럽 등 인근의 각종 정보를 갖고있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일부 한인 학생이 마리화나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내에서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딜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청소년들은 마리화나를 담배 흡연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왜 마리화나를 사용할까?

한인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리화나를 사용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마약 시도 여부를 결정 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이웃 등 모든 환경이다.



마리화나 중독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화나를 일부터 찾기 시작하고 충동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마약 의탁증이 있거나 중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리화나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마약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 식욕감퇴, 수면 장애, 체중감소, 수전증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마리화나의 악영향

마리화나는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혈액과 산소 공급의 수축시킴으로써 중추신경계의 반사 시간을 늦추고 운동 신경 능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사건들에 대한 단기 기억력 감퇴를 초래한다. 복합과제 취급이 곤란하며 지각력과 반사시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잦은 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 무분별한 성행위와 집중력 장애로 인한 학습장애를 가져온다. 직접적 영향으로는 마리화나를 처음 접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추한 상태, 도취감). 평범한 광경이나 소리 혹은 맛에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매우 몰두하게 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며 사소한 사건들도 매우 흥미롭거나 우습게 느껴질 수 있다. 시간이 매우 천천

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느껴진다. 때로는 심한 공복감이나 갈증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먼치-군것질' 이라고 한다. 심한 불안감과 과대 망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을 마약의 해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해주는 방법의 하나는 바로 가정에서의 대화인 것이다.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사랑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라는 자존감 능력을 길러주면 '또래 집단의 은근한 마약 유혹'을 쉽게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예방책을 위해서는 한인 부모들이 마약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마약에 관한 정보는 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어 핫라인 (1-888-258-3137) 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하얀 가루로 인식되어 온 마약이 작은 알약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더구나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최근에는 대통령의 동생인 후로리다 주지사 J. 부시의 딸이 알약 형태의 마약을 구입하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엑스터시, 한인 청소년 안전지대 아니다.

'마약의 에이즈' 엑스터시가 최근 한인 청소년 사이에 널리 유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코케인, 히로뽕, LSD, 아이스의 뒤를 이은 제 3세대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는 환각효과가 다른 마약의 4배에 달하지만 알약 형태로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좋고,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점 때문에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무색의 가루 형태로 되어있는 엑스터시는 0.5인치 크기의 알약 또는 캡슐 형태로 한인 청소년들이 한알에 15-20달러로 나이트 클럽이나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과 달리 죄책감을 덜 느끼게 해주며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환각제로 이를 복용하면 20분에서 1시간 후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면 환각상태가 극치에 달한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사랑받고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이라는 자존감 능력을 길러주면
또래 집단의 은근한 마약 유혹을 쉽게 거부할 수 있다.**

다는 이유로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 보편화 되고 있으며 갈수록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무서운 중독증세까지 일으키고 있다. 엑스터시를 복용하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눈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등 신체상의 반응이 나타나므로 자녀의 신체 변화를 가족들은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신중 마약 엑스터시로 인해 수 많은 젊은이들이 뇌 손상으로 죽음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집안의 마약’ 코로 흡입 ‘환각 여행’

가장 위험한 마약 중 일부 약품은 길거리에 있지 않다. 바로 싱크대 밑에 있는 것이다. 보통 가정에서 합법적인 제품으로 사용하는 세제, 헤어 스프레이, 본드 등도 ‘취한 기분’ ‘붕 뜨는 느낌’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손에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흡입제의 사용은 사망까지 포함하여 건강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인 부모들이 흡입제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와 흡입제의 위험성에 관해 상세히 알아본다.

흡입제란 무엇인가?

흡입제란 정신 활동량 급증이나 정신 착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입될 수 있는 화학성 기체를 생산하는 휘발성 약품이다. 비록 다른 중독성 약물들도 흡입될 수 있지만, 주요 특성이 흡입 이외 다른 경로로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여러 약물을 설명할 때 ‘흡입제’란 용어가 사용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수 백 개의 가정용 약품들은 오픈 용기에서 직접 코로 스니핑을 하거나 약물에 적신 천 조각을 얼굴에 들고 입으로 ‘허핑’함으로써 신속하게 마약에 취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흡입제로 부적절하게 오용될 수 있는 제품들

용매(솔벤트) : 본드, 고무풀(접착제), 드라이클리닝 액, 가정용 세제, 아세톤, 페인트 시너 등
기체 : 에테르, 클로로포름, 아산화 질소(웃음가스, 소기)들의 의료 마찰제, 부탄가스,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각제, 조리용 스프레이, 스프레이 방취제, 가솔린, 자동차 폴리쉬, 페인트 드레인, 방향제 등

흡입제 사용으로 생기는 물리적인 증상

이상한 입냄새 혹은 옷에 배인 화학물질 냄새, 흐트러지게 발음하고 혼란스러운 말투, 술취한 듯 멍 하거나 어지러운 외양, 충혈된 눈, 코, 혹은 눈물이나 콧물, 입 주위의 상처 및 반점, 메스꺼움, 식용 감퇴,

흡입제 상습 사용자의 증상

흡입제 상습 사용자들은 초조함, 흥분, 짜증 혹은 불안감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들은 흡입 후 15분에서 45분까지 지속된다. 기타 흡입제 사용 및 중독자의 증상은 펜이나 매직펜을 코 가까이 두고 앓아 있음, 끊임없이 옷소매 냄새 맡기, 얼굴, 손가락이나 옷소매에 페인트 자국이 보임, 벽장이나 박스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됐을만한 약품의 걸레, 옷 및 빈 용기 숨기기, 화학물질로 흠뻑 젖은 걸레, 양말, 가방, 오용 가능한 가정용 제품 분실, 움츠러드는 성격이나 성격의 변화, 학과성적 악화 등이다.

마약류 중독자 식별 방법

의심이 되는 대상이 10-20대라면 본드, 부탄가스 등의 환각 흡입물질 또는 수면제, 기침 약 같은 일반 의약품을 남용할 가능성을 예상해 본다. 흡입제의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충혈된 눈, 잦은 눈물, 손 발 등의 경미한 떨림,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혀가 말린 소리, 횡설 수설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폭력적인 언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옷에 흡입

제가 물어 있거나, 방에서 환각 흡입물질이나 대통, 빨대, 비닐봉지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일반약품을 남용하는 경우는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발음이 불명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눈동자가 풀려있고, 술냄새가 나지 않는데도 몸을 덜덜 떨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0대 이후 부터는 마리화나 등의 마약류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특징은 눈이 자주 충혈되어있고 눈물을 많이 흘리며, 마른 잎이 탄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고, 심하게 중독되어 있으면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의 조정 능력을 상실하여 비틀거리며, 급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까지 한다. 마약류와 약

물 남용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감추려고만 하고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멀리하면서 자기 방에 혼자 있고자 한다.

2001년 10월 순례때였습니다. 그날도 목격자 비스카는 가정과 청소년들을 위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던 중 약 45분간의 긴 춤북중에 성모님과 기도드린 후, 눈물을 글썽거리며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 위험에 처해있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세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증상

약물종류	약명	익명	사용법	사용후 증상	효과
Marihuana (마리화나) Hashish(하쉬쉬)		Pot(팟), Grass(그라스) Reefer(리퍼), Weed(위드) Joint(조인트), Herb(어브)	흡연으로 혹은 환으로써 삼킬수 있음.	몸무게의 변화, 외모에 무관심, 흥미, 욕망이 없어짐. (몸에서 탄 냄새가 난다.)	기억상실, 폐, 심장에 해를 끼치며 면역성의 결핍, 심리적인 의존.
Cocaine (코케인)		Coke(코크), Snow(스노우) Toot(투트), Crack(크랙) Rock(락), White Lady	흡연으로 혹은 흡입. 환을 삼키거나 주사로 사용.	안절부절, 초조와 불안, 감간 기분이 좋았다가 곧 우울해 짐.	수면부족, 의존하려함, 폐나 비강 안에 해를 끼칠 뿐더러 심하면 죽음을 초래.
Stimulant (자극제)	Amphetamines Dextroamphetamine Methamphetamine	Speed Uppers(어펄스) Pep Pills(펩필스) Moth	주사로 혹은 환으로 삼킬 수 있음.	주사바늘 자국, 화를 잘내며 초조해 보이고 기분의 변동.	식욕감퇴, 환각, 발작 등 코마 상태. 뇌의 이상, 과용했을때 죽음을 초래.
Hallucinogens (환각제)	PLP (Phencyclidine)	Angel Dust(엔젤 더스트), Weed(위드), Killer Hg(킬러호크), Supergrass(수퍼그라스)	흡연, 흡입, 주사로 혹은 환으로 삼킬 수 있음.	말이 흐려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혼동된 상태, 안절부절 공격적.	초조, 우울증, 기억상실, 지각상실, 과용할 때 죽음을 초래.
	LSD	Acid(에시드), Cubes(큐브스) Purple Haze(퍼플헤이즈)	흡입으로	기분의 변동, 눈동자가 흐려지고 환각에 빠짐.	감정적으로는 무감각 상태, 환각 혹은 혼수상태.
Depressants (진정제)	Barbiturates (바비뉴레이트) Pentobarbital Secobarbital	Red Devils(레드데블즈) Blue Devils(블루데블즈) Barbs(바브스) Downers(다우널스)	환으로 삼키거나 주사를 사용.	졸리게 되고 혼동상태 초래, 판단이 흐려지며 말도 흐려짐, 주사바늘 자국.	식욕감퇴, 중독, 구토, 의존하게 되며 과용하면 죽음을 초래.
Narcotics (날카디스)	Demorol(데모롤)		주사, 환이나 액체를 삼킴	졸려워지고 무기력해짐.	식욕감퇴, 중독 과용하면 죽음을 초래.
	Codeine(코데인)	School Bou	환이나 액체로 삼킴		
	Morphine(몰핀) Heroin(헤로인)		주사로 사용.	주사바늘 자국.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죄를 보속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고통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자비의 기도와 묵주기도로 9일 기도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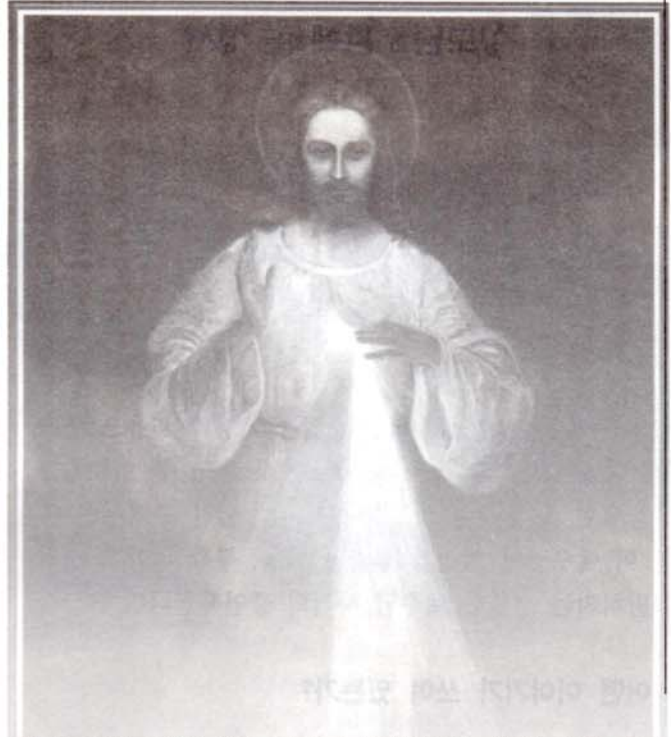
하느님 자비심에 대한 신심

예수님께서는 이 피정에서 하느님 자비심의 신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주셨다.

“내 딸아, 사람들이 나의 자비심에 대한 신심을 증진시킬 때 그것은 단지 내 자비에 대한 신뢰와는 구별된다. 나는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리나라 자비의 행동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자비를 보여야 한다. 자비를 피하거나 변명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하게 세 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 둘째는 말, 셋째는 기도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비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삼고, 자비의 행동을 보여라. 자비의 신심으로 축일을 장엄하게 거행하고 내 모습이 그려진 상(像)을 공경하여라. 나는 이 상을 통해 많은 은총을 내린다. 그리고 이 상은 내 자비를 상기시킬 것이다. 아무리 돈독한 신앙을 가져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기도는 나의 분노를 달랠 것이다. 9일동안 묵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여라. 먼저 주의 기도와 성모송과 사도신경을 바쳐라. 그 다음 주의 기도를 바치는 곳에서는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



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하고 기도 하여라.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다음의 기도를 세 번 바쳐라. ‘거룩하신 하느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폴란드의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직접 주신 기도문입니다.**

“내 딸아, 온 세상에 나의 무한한 자비를 알려라. 내 자비가 모든 영혼들, 특히 죄인들의 피잔치가 되기를 바란다. 그날 내 깊은 자비의 바다가 열릴 것이며 내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은 은혜를 내릴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모든 죄와 벌을 사면받을 것이다. 그날 은총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는 너무도 엄청나서 누구도 그 깊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이다. 내 자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원히 내 사랑과 자비를 관상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내 깊은 자비심에서 유래한다.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지내기를 원한다. 인류가 내 자비의 샘에 찾아들기 전까지 그들은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M**



마르코복음 읽기를 위한 길잡이

마르코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에 관해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다른 복음서(루가, 마태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있습니다. 감추어진 ‘메시아 비밀’ 이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 죽음, 부활 안에서 서서히 밝혀지는 생생한 예수님 사건의 증언록입니다.

1)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는가?

마르코 복음서는 모두 16장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1.1 참조>의 기쁜 소식이 역사적인 인물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 밝혀지는 메시아의 비밀, 수난 예고에 이어지는 제자들이 걸아가야할 길, 복음서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예수님의 수난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새기게 합니다.

수난과 십자가 죽음에서 드러나는 메시아 비밀 !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8.29>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나무라시며 아무에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 인자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때까지는 그들이 본 바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말라” <9.9>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메시아의 비밀’ 은 수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 온전히 드러납니다.

“인자는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고죽임을 당했다가...” <8.31>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더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 번이나 걸쳐 수난 및 부활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 뒤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조건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서읽기표는

- 1) 매번 읽기전에 ‘주의 기도’, ‘성모송’ 으로 시작기도를, 마칠때는 ‘영광송’ 을 바칩니다.
- 2) 매일 꾸준히 읽습니다. (읽은 날은 Check를 합니다)
- 3)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습니다.
-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 를 만들어 바칩니다.

미네소타 지역 메주고리에 기도회 소식

미네소타 지역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인이 45가족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지역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에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적극 실천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성모님께 감사 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최베드로 회장(651-450-7452)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 2차 후원인 명단 ■

김수산나 (지난 5월에 12불 지불) 우주승 (지난호에 이름이 틀린 사람)
최기용 권호기 김현웅 김병덕 신디황 김선옥 이남춘 이양희 홍재규 최금화 루피나김
YOUNGREN FURNITURE KONSCHMIDT SOON JOHN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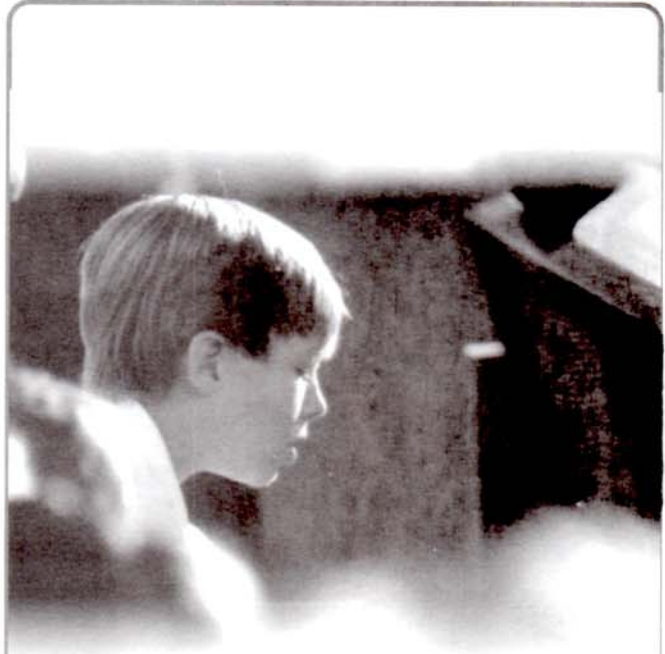


복음서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예수님의 수난은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새기게 합니다.

이달의 성서 읽기표 (2002.1.15-2.14)

날짜	요일	장 절	check
2/18	월	마르코복음 1,1-20	
19	화	1,21-45	
20	수	2,1-17	
21	목	2,18-3,6	
22	금	3,7-30	
23	토	3,31-4,20	
24	일	4,21-41	
25	월	5,1-20	
26	화	5,21-43	
27	수	6,1-13	
28	목	6,14-29	
3/1	금	6,30-56	
2	토	17,1-23	
3	일	7,24-8,10	
4	월	8,11-30	
5	화	8,31-9,13	
6	수	9,14-29	
7	목	9,30-50	
8	금	10,1-16	
9	토	10,17-31	
10	일	10,32-52	
11	월	11,1-19	
12	화	11,20-12,12	
13	수	12,13-27	
14	목	12,28-44	
15	금	13,1-37	
16	토	12,28-44	
17	일	13,1-37	
18	월	14,1-31	
19	화	14,32-72	
20	수	15 장	
21	목	16 장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목 상

허허로운 마음으로
 당신앞에 다가가면
 부끄러운 손길은
 그리움으로 애타하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요한 침묵속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가슴 절절히 흐르는 감미로운 되어
 손 땀과 마음을 휘감아 줍니다.

소수
 한없이 감미롭고
 아름다운 내님이여
 내 영혼은 소직 당신 안에
 영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제 이름은 칼로스이며 18세 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있던 저의 삶과 지금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살 때 저의 동생과 함께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었고 저는 이날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저의 여동생과 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드디어 엄마 아빠가 있고 들어갈 집이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입양 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참으로 이상했던 것은 오직 나쁜 기억만이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가정에서 저는 참으로 행복하게 커갔습니다. 정상적인 아이였고 저의 부모님들은 헌신적으로 저에게 이로운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고 제 기억으로는 학교 성적도 우수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들은 부유하셨지만 저를 응석만 부리면 무엇이든지 사주는 일은 없었고 늘 선물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받을 일을 했을 때 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학교의 선배들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고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말투, 그리고 담배피는 모습과 늘 여학생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순간 학교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집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과 다툼을 하였습니다. 저는 새로

제가 이곳에 도착하던 첫날이
기억납니다.
형제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이들이 전에
마약중독자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운 것을 계속 찾기 시작했고 어느 덧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고 어떤 이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어떤 이 앞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이중성격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주 이상했던 것은 이런 나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지만 바꾸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주지 않으신다고 언급했는데 나중에는 '알게 뭐냐?' 하면서 그냥 집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제가 왜 입양되었는지 후회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3-4일 동안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런 삶을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 같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우신 저의 어머니의 강한 집념과 친구 가족의 도움으로 저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공동체에 대해서 들었지만 귀를 막았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이 이 공동체에 가는 것 보다 더 낮게 들렸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수 없는 설득에 드디어 저는 양보를 했고 미성년자라는 조건으로 메주고리에 공동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적응하기에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하던 첫 날이 기억납니다. 형제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이들이 전에 마약 중독자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도와주고자 했지만 저는 도움을 받기

싫었습니다. 저는 진리나 기도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생각나는 것은 어서 1년 반을 채우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포기하는 이들이 없었고 늘 옆에서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변화되기

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나의 친구가 되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늘 이로운 것만을 줄려고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저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저를 이처럼 돕는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도해 보았지만 친척 친구가 가르쳐 준 갖가지 기도였는데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완전히 이기적이었고 무엇을 원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만 드리는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기 시작하자 내 안에 있던 느낌들이 변화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문제들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들에 대해 제가 너무 예민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문제들을 바꾸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제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시작해야 하겠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를 돕고 진리로 이끌어준 친구들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공동체에 머문지도 벌써 2년 반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 즉 교만했던 순간이나 이기적인 생각 등을 봅니다. 이런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다가 실패했으나 이제부터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 잘못으로부터 배우며 남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에 부딪칩니다. 저는 늘 쉬운 길을 택했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웃어넘긴 자인이지만 이제는 고통을 기쁘게 끌어 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분은 늘 함께 하시며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칼로스 / 18세> **M**

- 번역 / 평화의 모후 센터 -

내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라!

- 오 수산나 -

존경하올 신부님,
메주고리예를 다녀온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게으른 탓으로 제 영혼의 일들을 펼쳐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글로써 그곳에서 체험한 일들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날 메주고리예에 도착하니 웬지 고향에 온 듯, 그동안 지고 다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친정엄마 무릎을 베개삼아 누워 있는 심정이었음이 정확한 표현일듯 합니다.

고요한 정막으로 갈아입은 어두운 밤,
사랑과 평화가 눈처럼 내려 세상을 덮는 짙은 밤,
손에 잡힐 듯한 별을 만지고싶어 내밀던 팔에
어머니께서 주시는 평화와 함께 안기는 싱그러운 공기.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는 바람소리 맞추어 은은히 메라이
치는 목주의 기도소리,
오~ 어느 누가 이처럼 아름다운 멜로디를 칠 수 있겠는가!
달과 같이 아름다운 어머니께서
홀연히 나타나시던 장소에서
어머니의 향기 맡으며
젖내음속에 포근히 잠기던 순간들을 생각하니
그리운 마음에 다시금 코끝이 시큰해 집니다.

야고보 성당에서 매일 3시간씩 드리던 아름다운 미사 전례, 천상의 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들의 말로 드리는 목주기도가 울려 퍼질 때면 그 기도를 타고 이슬처럼 내려오는 평화를, 과연 이 지상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엄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했고 정말 이곳은 초자연적인 힘이 압도하고 있는 곳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맨발로 십자가산에 오르면서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묵상하는 것과 제 영혼의 얼룩진 때들을 씻는 것이 가장 큰 은총 중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온 후라서 너무나 질퍽이며 미끄러웠지만 평생에 없을 기회 같아서 올라갔습니다. 둥글고 큰 돌들은 미끄러워 밟을 수가 없어서 뽀족 뽀족한 작은 돌들을 딛고 올라가는데 진흙과 짹짹 하는 이 작은 돌들이 발에 붙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한테 칭찬 듣고 싶어서 안아픈척 하면서 올라갔지요. 호텔에서 십자가산 입구까지는 평편한 길로서 한 15분 걸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숨이 차서 이래서야 어떻게 저 높은 십자가산을 오를까 염려했는데 의외로 숨이 하나도 차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많은 이들이 이처럼 평탄한 길이 쉬운 길인줄 착각하고 산다. 사실은 삶 속에있는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이란다.” 하시면서 더욱 십자가를 끌어안고자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 걸으면서 정말 고통을 느끼고 싶어서 아주 뽀족한 돌을 일부러 밟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안 아픈 곳만 골라서 밟지도 말고, 더 아픈 곳만 밟지도 말고 그냥 네 앞에 주어진 것만 밟으면서 걸어가라.” 하시면서 지금 이순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함이 주님의 뜻을 강조 하셨습니다. 이곳에 깔려있는 돌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척 사납고 뽀족한 돌들의 모습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이들의 발길에 채여 아주 둥글 둥글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도 오직 굴욕의 화덕, 남의 밥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해 질 수 있음을 보면서 나도 착한 바보가 되어야겠다고 야무진 결심을 해 보았습니다. 14처의 십자가 길에서는 각 처에서 성모님의 보일듯 말듯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습으로부터 힘과 격려를 받으며 이 험한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드님의 마음을 아신 어머니는 정말로 강하게 버티시면서 기도하시며 겸손하신 순교자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지막 숨이 끊어진 제 13처 에서는 상처 투성이로 비참하게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으

로 실신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모습에 영영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라!” 하시는 천둥, 아니 번개불처럼 제 가슴을 태우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답니다. 신부님께서 잘 아시는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비석에 손을 얹고 신부님과 모든 사제들 그리고 신학생과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참으로 뜨거운 감명과 함께 그분의 현존도 느꼈습니다. 요조신부님의 말씀 중

“사제 없는 천주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니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신 말씀은 다

시금 저의 소명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쏟아지는듯한 별빛과 함께 험한 자갈밭 십자가의 길을 손잡고 올라가시던 어머니는 십자가 밑의 그 메주고리에 언덕에서 물으셨습니다. “수산나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목메인 소리로, “어머니, 당신만이 아십니다...” 하며 흐느꼈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득했던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신부님은 이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 신기하고 신기한 것,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십여 년간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기회가 잦았고 그때마다 목이 조이는 공포와 두려움과 초조에 얼마나 시달리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 해야 된다는 신부님 말씀에 순명하면서 해왔지만 내적으로 겪은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메주고리에 와서는 말할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상태가 또 와서 허덕이면서 우울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당 앞마당에 계신 평화의 모후 상 앞에서 감히 어머니와 말씨름을 했습니다. 지난 날 고통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정말로 저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이 강박감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님, 건방졌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오죽 죽겠으면 이런 때를 썼겠습니까? 그 다음날 왕 신부님께서 이끄시던 성령미사 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네가 입을 열때 너를 통하여 말하리라.” 하는 예언 말씀에 압도되어 그냥 쓰러졌고 나의 그 초라했던 지난 날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울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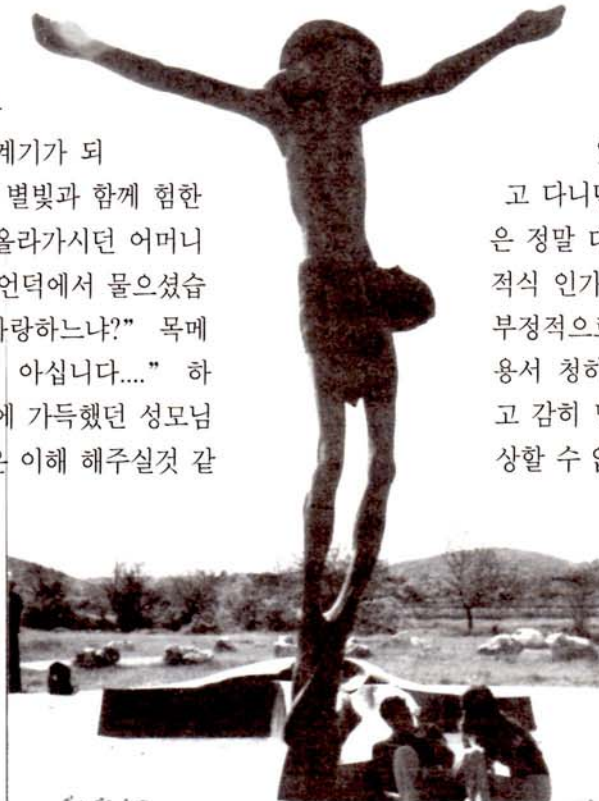
그리고 얼마 후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아름다운 향기 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 후 지금까지 아주 편히 대중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십여년 동안 매달

고 다니던 흑을 단 한방에 떼어주신 성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교회의 적식 인가도 안났는데 왜들 극성일까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지난 날의 잘못을 용서 청하고 메주고리에 는 지상의 천국이라고 감히 말하면서 가 보기 전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맛보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라고 지시하신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는 틀림없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리라 믿고 모든 것을 위탁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새기며 실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래서 어머니께서 주신 다섯 개의 조약돌을 가슴에 고이 파묻고 하루 하루 지켜나가기로 마음 먹으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연락 드리기로 약속하면서 오늘도 신부님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목주의 기도 올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 성과 로렌의 편지 -

친애하는 로스 목사님 !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2001년 2월달에 제 아내 로렌이 자연유산을 하게 되었을때 얼마나 앞이 캄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금 그 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속으로 저희들을 불러들이시고 계십니다. 긴급하게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8월달에 로렌이 임신을 했는데 그동안 상태가 좋은 듯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의사한테 갔더니 아기한테 척추이열이 있는것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척추이열은 척추가 정상적으로 똑바로 발달되지 못하고 한 부분이 아기 등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척추액이 쉽게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수분이 고여서 머리가 커지고, 두골이 앞에는 레몬같은 모습이 되고, 뒤에는 바나나같은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척추이열이 있는 부분 이하의 신경이 연결되는 몸 부분은 모두 마비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에 로렌과 함께 위험성이 많은 임산부들을 취급하는 전문의사들을 두 군데 찾아갔는데, 두 의사가 모두 똑같은 말을 들려주면서, 아기가 척추이열 뿐 아니라 흉곽과 복강을 분리하는 횡경막의 기형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횡경막의 기형으로 인해 아기의 복강 내에 있어야 하는 위장, 간, 그리고 다른 내장들이 심장을 밀고 올라가서 모두 흉곽내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허파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다른 내장들의 압력에 의해 심장이 가슴 중간에서 밀려나와 옆에 자리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아기의 오른쪽 팔은 팔꿈치 아래가 없고, 오른 손은 팔꿈치 위에 있는 상박골에 붙어있으며 손가락이 5개가 아니고 3-4개만 있다고 합니다. 태아가 이렇게 여러가지 기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고 두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의 기형을 교정하려고 해도 아주 복잡한 수술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아기

한테 위험하다고 합니다. 비록 모든 기형을 다 교정했다고 하더라도 아기한테 마비가 온다거나 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된다거나 뇌손상이 안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며, 아기가 살아남는다고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척추이열이든지, 횡경막 기형이든지, 사지의 기형이든지, 한 가지씩의 기형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여러가지 기형이 나타난 것을 볼때 염색체에 이상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견된 기형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기형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의사들이 모두 낙태를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로렌과 제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다가오는 주에 목사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시는 열심한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일요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와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과 로렌 올림.

로렌 부부는 뉴저지에 살고있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첫 아기가 자연유산 된 뒤 두번째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아기가 염색체 18번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유산을 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권유를 마다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기를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해달라며 어느 목사님께 보냈던 편지를 보내오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렌 부부는 하느님이 아니시면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만연하고 있는 지금 이시대에 아기의 불구를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로렌 부부님의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용기에 진정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며 그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 부부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시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으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

English Edition of Queen of Peace



contents

Holy Father's
Prayer to Our Lady

Interview with Vicka Ivankovic
visionary

Testimonies and Conversions



Pray! Pray! Pray

Monthly Message from Medjugorje

December 25, 2001

"Dear children! I call you today and encourage you to prayer for peace. Especially today I call you, carrying the newborn Jesus in my arms for you, to unite with Him through prayer and to become a sign to this peaceless world. Encourage each other, little children, to prayer and love. May your faith be an encouragement to others to believe and to love more. I bless you all and call you to be closer to my heart and to the heart of little Jesu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Holy Father's Prayer to Our Lady of Peace

O Mary, Help of Christians,
in our need we turn to you
with eyes of love, with empty hands
and longing hearts.
We look to you that we may see your Son, our Lord.
We lift our hands that
we may have the Bread of Life.
We open wide our hearts
to receive the Prince of Peace.

Mother of the Church,
your sons and daughters thank you
for your trusting word that echoes
through the ages,
rising from an empty soul made full of grace,
prepared by God to welcome
the Word to the world
that the world itself might be reborn.
In you, the reign of God has dawned,
a reign of grace and peace, love and justice,
born from the depths of the Word made flesh.
The Church throughout the world joins you in praising him
whose mercy is from age to age.



Holy Father's Prayer to Our Lady of Peace continue

O Stella Maris, light of every ocean
and mistress of the deep,
guide the peoples of Oceania
across all dark and stormy seas,
that they may reach the haven of
peace and light
prepared in him who calmed the sea.
Keep all your children safe from harm
for the waves are high and we are far from home.
As we set forth upon the oceans of the world,
and cross the deserts of our time,
show us, O Mary, the fruit of your womb,
for without your Son we are lost.
Pray that we will never fail on life's journey,
that in heart and mind, in word and deed,
in days of turmoil and in days of calm,
we will always look to Christ and say,
"Who is this that even wind and sea obey him?"

Our Lady of Peace,
in whom all storms grow still,
pray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that the Church in Oceania
will not cease to show forth
the glorious face of your Son,
full of grace and truth,
so that God will reign in the hearts
of the Pacific peoples
and they will find peace
in the world's true Saviour.
Plead for the Church in Oceania
that she may have strength
to follow faithfully the way of Jesus Christ,
to tell courageously the truth of Jesus Christ,
to live joyfully the life of Jesus Christ.

*Given in Rome at Saint Peter's, 22 November 2001, the
twenty-fourth of my Pontificate.*

SHORT INTERVIEW WITH VICKA IVANKOVIC "PRAY FOR THE YOUTH!"

Vicka is one of the three visionaries who are still having daily apparitions today.

by Marijan Sivric

The visionary Vicka Ivankovic, is a special attraction for the pilgrims. Every one wishes to greet her and ask something of Our Lady through her. While she was passing, we stopped her and asked her how she felt on the "Peace walk", in which she was participating.

Vicka Ivankovi: "Oh, you can't describe it with words. It really is majestic to walk behind Jesus in the Blessed Sacrament and pray the rosary and sing."

Marijan Sivri: And how do you feel after fifteen years of Our Lady's apparitions?

V. I.: "Super. Just the same as I felt on the first day. Our Lady recommends that we pray for the youth, for families and for peace. She says that the youth of today are in a very difficult situation, and that we should pray in a special way for them. And she urges us to pray for a particular plan of hers which isn't yet realized."

M. S.: What plan is that?

V. I.: "She still hasn't said. We will see".

M. S.: You still haven't received the tenth secret?

V. I.: "That's right. For the moment I have nine".

M. S.: When do you expect the tenth?

V. I.: "Our Lady hasn't said anything about it. I'm waiting".

M. S.: So you still have daily apparitions?



V. I.: "Yes, Our Lady appears to me every day, sometimes on the hill, sometimes in the Church, and sometimes at home. It depends on wherever I am".

M. S.: What sort of prayers do the pilgrims most often pray?

V. I.: "People mostly pray for their own needs, and I try to persuade them to pray for Our Lady's intentions too, to pray the rosary for peace".

M. S.: How and in what way have Our Lady's messages been accepted?

V. I.: "Our Lady told me that she still has many messages for us, but we cannot be ready for them if we haven't even accepted the ones which have already been given, at least not in the way she would like.

M. S.: What would Our Lady like?

V. I.: "She would like us to accept the message with our hearts and to live them. Often we accept the message, we begin to live it, but then we get tired and we remain the way we were before. And Our Lady would like that everyday we live her messages a little bit and that we would make progress in our lives."

M. S.: Is that why she has stayed so long in Medjugorje?

V. I.: "I don't know. A long time ago we asked her how long she was going to appear for, and she replied, "Why, are you tired of me already? "After that we never asked her again!"

From the darkness to the light

Personal testimony and a conversion story of a member of Cenacolo in Medjugorje.

I am 18,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a little of what I experienced before entering Community and how I'm living now. At the age of 5, I was adopted with my sister into a new family. I remember this day up 'till now. My sister and I were really happy because we finally had a mom and dad and a home to go to. But inside me I already had problems. Even if I was real young, I could not erase the memories of my past family, memories that really bothered me. It was weird because all I could remember were bad things.

Growing up with my new family was real nice. I was a normal kid and my parents wanted only the best for me. They would send me to good schools, and I remember I always did well. Even though my parents were well off with money, they never spoiled me. I never got anything without first deserving it. As I got a little older, things started to change. In school, I always remember observing the older guys and always wanting to be like them. I saw the way they dressed, the way they talked to one other, how they were smoking and there were always girls around them. I would tell myself, "I want to be like that, too." Then, all of a sudden, things just changed. In school I started dropping grades, and at home there was never peace. There was always some kind of argument with my parents and with my friends. I was discovering new things all the time 'till it led into drug use. And there was one lie after another. I would see myself behaving one way with one person and another way with someone else. But the strange thing was I knew that the way I was behaving was wrong, but I didn't want to change it. I just continued.

I said before that my parents never gave me anything without deserving it. But I got to a point that I thought, "Who cares," and I would just take it anyways. At home thing got worse with my parents. It comes to the point where I wished I had never been adopted. I would go off for



From the darkness to the light continue

days and not come back. Inside me, I knew I couldn't go on like this. I was ruining my family, and I knew that I wasn't happy. But thanks to my mother's firm character and the help of some friends of the family. I was able to get help. I was sitting in jail when the idea of Community came up, but I didn't want to hear about it. I had a year and a half to do in jail, and this sounded better than going to Community. It took my mother a lot of convincing to change my mind, but I finally gave in. I entered in Medjugorje because I was minor. It took me a while to get adjusted because everything was different. I remember my first day, I saw that all these guys were happy, and it was hard to believe that they were once drug addicts. I remember that, as time went on, things got harder for me. People wanted to help me, but I didn't want their help. I didn't want to hear the truth, and I didn't even care about praying. All I was thinking about was getting my year and a half over and going back to America. But I noticed how no one would give up on helping me, even if I were hard headed. They were always there ready to explain things to me. It was amazing. I knew inside of me that these guys only wanted the best for me. They wanted to see me change, but more than anything, they wanted to be my friends. Slowly things started to change in me. I started to pray and to do Adoration. I would have never thought prayer could help me. When I was younger, I prayed. With the help of a good friend of the family, I was able to learn all the prayers, but I stopped there. I only prayed to God for selfish reasons, like when I wanted something or when I was in trouble. But now I find myself praying in another way. I am praying to become a better person. And ever since I started praying, I feel that my feelings inside have started to change. I realized that I was really a sensitive person with many problems. And when I realized all the problems I had, I told myself, "That's it. It's time to start changing. It's time to start doing things for myself." I want to become a good person. And thanks to all the guys around me who help me and tell me the truth every day. I know I can become a good person. Now it's almost two and a half years that I am in Community, and even today I still see things in me that I want to change, like my moments of pride and how I'm still a little selfish. I know these changes can only be done with God. I've tried on my own and failed. Now it's time for me to trust God, to learn from my mistakes, and to help others as well. It's not easy for me to stay in Community. Every day is a new fight. I always tried to take the easy way before Community. I would laugh at the idea of suffering, but now I'm happy to suffer because I know it all serves a purpose. And a lot of times when I just feel like giving up, I turn to God for help because I know He is there and He is going to help me.



The Community Cenacolo is a Christian association that welcomes lost, unsatisfied, delusional, and desperate young people who want to find themselves again, to find joy in life, and to find meaning for their lives. Including the one in Medjugorje, there are 33 fraternities spread throughout Italy and the world. For information: campoinfo@campo-della-vita.org

5월 메주고리에 피정 순례

2002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8박 9일)

- 5월 24일(금) New York, JFK공항 출발.
25일(토) 메주고리에 도착, 석식, 투숙.
26일(일) 발현산 순례 (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한국어 미사
오리엔테이션 및 순례객 인사, 피정강의, 지도사제와의 대화
St. James 성당에서 저녁예절 및 미사.
27일(월) 십자가산 순례기도 (14처 기도), 성가 찬양, 피정 강의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28일(화) 목격증인 비스카와의 만남,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 청십자가에서 기도와 묵상
기도로 치유되는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29일(수) 시로크브리예로 출발, 티할리나에서 한국어 미사, 요조신부님의 만남
치유예절,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30일(목)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한국어 미사
부활십자가 및 슬라브코 신부님 묘소 방문, 성가찬양, 나눔의 시간.
31일(금) Dubrovnik으로 출발,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및 순례
석식 및 Hotel 투숙
6월 1일(토) New York JFK 도착.

지도 신부 : 임언기 신부

신청 마감 : 2002년 3월 30일 선착순 마감

순례 경비 : US \$1,390 NY JFK출발 기준

\$1,490 캐나다 출발 기준

(비행기 예약 관계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보스니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권과 여권사진 1매, 영주권 사본 및 신청서와 비용 US\$80(특별 우편료 포함)을 2월 28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후 보내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은 미주 평화의 모후센터(남 그레고리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절 취 선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후원금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성명 한글 :	영문 :	세례명 :
주소(지택) :		
전화번호 : 집		직장
소속본당 :		
납입금 종류 :	<input type="checkbox"/> 월후원금 ()	<input type="checkbox"/> 3개월 () <input type="checkbox"/> 6개월 ()
	<input type="checkbox"/> 1년 ()	<input type="checkbox"/> 수시로 ()
Pay in : Queen of Peace Center U.S.A.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보내실 곳 (Mail to) :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